

찬양+ 드라마= 하나님께 영광

찬양과 율동으로,



shout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 아마 없으시겠죠? 우리교회 초등부 찬양팀 이름이 바로 shout입니다. 그냥 '소리지른다'는 뜻만이 아니구요. 시편 118편 15절 말씀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SHOUTS** of joy and victory resound in the tents of the righteous: "The Lord's right hand has done mighty things!")라는 구절에서 따온 고상한 이름이랍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 하심을 외치는 소리가 되자는 의미에서 지어졌습니다. 저희 찬양팀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헤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2007년 당시 초등부 전도사님과 제가 함께 처음 시작했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덧 26명의 아이들과 2명의 선생님이 함께 하는 대식구가 되었고 지금은 찬양뿐만 아니라 율동도 함께 한답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를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간쯤 준비하는데요. 연습하기에 앞서 먼저 한 시간쯤 성경 읽고 말씀 나누고 찬양가사에 대한 얘기도 나눕니다. 주말에 모처럼 쉬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고 나서서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스럽지 않나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찬양과 율동을 주일 예배 시작에 앞서 다 시 30분 동안 최종적으로 더 점검한 다음 마침내 예배의 자리에 나서게 됩니다.

찬양팀이 등장한 이후로 초등부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아이들만 주로 참여하고 남자아이들은 율동조차 거의 따라 않더니 지금은 오히려 남자아이들이 더 많이 더 열심히 참여하고 신나게 찬양하여서 저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찬양팀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예배의 중요성, 올바른 예배자세나 마음가짐에 대해 배우게 되고 또 의무적으로 QT를 하기 때문에 비록 어리지만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게 눈에 띈 정도입니다. 특히 처음QT를 시작할 때는 다들 어렵고 힘들어 했지만 이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먼저 예배를 준비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QT의 이해도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나가는지를 절로 깨닫게 된답니다.

사실 제 자신이 학생인 데다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 넘게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더 큰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제 믿음도 자라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쳐나니 감사한 마음과 기대감으로 오히려 주말을 기다리게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찬양팀을 통해 아이들이 정성스레 온 마음을 다해 찬양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찬양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중고등부나 EM에 올라가서도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뵙아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길 바라며,우리 초등부 찬양팀 파이팅!!! [초등부 찬양팀 교사 강유라]

우리 드라마로,



“드라마팀? 우리 교회에 뭐 그런 게 다 있었어?...” 네, 있습니다. 바로 초등부에. 드라마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초등부 드라마팀은 Unfailing Drama Team이라는 훌륭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성경에서 가져왔는데요.

“I will tell of the Lord’s Unfailing love. I will praise the Lord for all he has done. I will rejoice in his great goodness to Israel, which he has granted according to his mercy and love.” [Isaiah 63:7] 이사야서 63장 7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다가 저희 드라마팀의 Theme Verse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영어로 Unfailing love, 실패치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표현하였던군요. 우리 드라마팀을 통하여 초등부 친구들에게 영원하신 그 사랑을 전하자는 의미에서 Unfailing Drama Team 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드라마팀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될 것이기에 실패할 일이 없다는 이중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약자로는 UDT인데, 어른들은 군인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초등부 드라마팀이란 것도 함께 기억해주세요!

드라마팀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샬롬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습하는 것은 보통 말씀을 연극화하여 아이들이 직접 연기를 하거나, 영상으로 만들어 초등부 예배시간에 설교를 돕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매주 연습하지만 연극을 매주하지는 않으며,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거나 때때로 성탄축하의 밤이나 부활절 같은 행사에는 특별한 스킷같은 것도 합니다. 초등부 아이들은 친구들의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머리에 더 확실히 와 닿고 말씀의 이해도 훨씬 쉽게 된다고 말합니다.

드라마팀은 연극 연습뿐 아니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끔은 찬양도 합니다. 말씀 묵상 후, 하게 될 연극이나 스킷을 소개하고, 역할이 정해지면 연습을 한 뒤 학부모님께서 직접 제공해주시는 간식을 먹으며 교제를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현재 약 6명의 아이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성탄축하의 밤, 부활절 등 특별 행사시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 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연습하며 기도하는 순간들이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말 그대로 어린아이의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때, 저도 아이들과 하나되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따뜻하기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연습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가끔씩 제 삶이 말씀 위에 제대로 서있지 못할 때는 연습자체가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엔 제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은혜가 되긴 하지만요. 그런데 저희 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역할을 연기 해줄 사람이 마땅치 않을 때랍니다!.....

UDT는 정말 작은 규모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어 쓰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팀의 부족한 연극을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의 unfailing 하신 사랑으로 역사하여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초등부에 구원받는 아이들이 팝콘튀기듯 팍팍 튀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드라마팀을 거쳐가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던 아이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둠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들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아이들과 이 두 가지 기도제목으로 자주 기도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초등부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 교회 온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주세요!

[초등부 드라마팀 교사 이정현]



찬양팀 교사 강유라(좌), 드라마팀 교사 이정현(우)